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MB 아니다”

“김재정·이상은이 소유주”
검찰 수사 뒤집은 ‘황당’ 재판부
2008년 특검·文정부 검찰 수사결과 뒤집어

[강훈의 MB법정일기 ⑬]

2008년 특검은 도곡동땅 매입자금인 김재정·이상은 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특검은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MB가 아닌 이상은·김재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MB재판에서는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밝혀졌다. 김재정 몫의 매각대금은 김재정과 부인 권영미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정 몫 중 MB가 사용한 돈이 한 톨도 없다는 사실은 검찰과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다.

이상은 몫의 매각대금은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이 대부분 사용했다. 다만 이동형이 제출한 정부에 의하면 이상은은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받고 MB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MB가 퇴임 후 살고 있는 노현동 사저의 수리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상은은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생 덕분에 이정도 살게 되고,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말형인 내가 그 정도 돈도 빌려주지 못하냐”고 반문했다. 동생 덕분에 잘 살게 됐다는 말은 MB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도, 다스가 성장한 데에는 현대건설 회장,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낸 MB라는 배경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의미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상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도곡동땅의 실소유주가 김재정·이상은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땅을 매입한 자금도 두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땅을 매각한 돈도 두 사람이 모두 사용했다. MB는 이중 일부를 빌려 썼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도곡동땅의 실소유주가 MB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김재정 몫과 이상은 몫을 분리해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김재정 몫의 도곡동땅 매각대금이 MB 것이라고 판결 내린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재정이 그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식투자 손실을 입는 대형 사고를 쳤으니, 그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한 것은 자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상상력만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소설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김재정이 사망할 무렵 도곡동땅 매각대금이 들어있는 현대증권 계좌 잔액이 약 62억 원 상당이었는데, 그럼에도 김재정 부인 권영미가 상속세 및 자금부족을 호소한 점에 비춰보면 권영미에게 처분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곡동땅이 MB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재정이 사망한 후 권영미가 상속세 물납 실무처리를 이병모가 도와준 것은 이런 인연 때문이다. 상속세 440억 원 중 400억 원은 다스 자본으로 물납했고, 나머지는 40억 원은 도곡동땅 매각대금 등으로 납부했다.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권영미는, 상속이 완료된 후에도 이병모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병모는 주식투자·세무 업무 등을 도와주며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권영미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병모의 도움은 실무 차원 수준이었으므로 권영미는 자신의 재산이 수익성 있게 제대로 투자·운영되고 있는지를 몰라 불안한 상황이었다.

마침 MB가 퇴임한 후 이병모로부터 청계재단 실무를 보고받게 되자, 권영미는 이병모에게 자기가 보고받던 내용을 MB에게도 함께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병모는 MB에게 청계재단 관련 업무를 보고할 때, 권영미의 현대증권 계좌 현황도 함께 보고를 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보고 내용에는 권영미가 이 돈을 찾아 아이들 결혼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에 쓴 내용 등이 적혀있다.

악력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7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시장경제신문 meconomynews.com		회사명 에이앤에프 코리아	
발행인 유지원	편집인 서진기	청소년보호책임자 전동식	
대표전화 02-6919-7032	(우) 04527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3층 (단암빌딩)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등록번호 서울 다 10279	등록년월일 2011년 8월 23일		간별 주간
인쇄인 및 발행소 동아인앤디 /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02-2020-17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스타 SNS



2022 임인년(壬寅年) 6월의 띠별 운세

사주역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띠(자, 子)

모든 일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것을 상기하며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라. **60년생** 학생인 자녀에게 용돈을 과하게 주면 안 좋은 일이 생길다. **72년생** 마음을 열고 지갑 끈은 단단히 매야 하는 날이다.



띠(축, 丑)

주위 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추진된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곳곳이 밀고 나가야 한다. 끈기 있는 도전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61년생** 만날수록 어려움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 친분을 돈독히 하라.



띠(인, 寅)

언제나 할 수는 없는 법.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기 위해 현명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록 조금 더 잃는다고 낙심 할 것까지는 아니니 개념치 말라. **62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준다. **74년** 생 시기 아색한 분위가 될 수 있다. 빨리 마음을 풀어야 하는 한다.



띠(묘, 卯)

서둘러 진행한다고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조율의 시간을 갖아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늦추다만 잘 해결될 것이다. **63년생** 진짜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75년생**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 과감히 자기 마음에서 이별하는 상태를 선택하라.



띠(진, 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있을 것이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64년생** 생각했던 것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어 당황스럽지만 뜻을 굽혀서는 안된다. **76년생** 더 머무면 안 되는 일이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띠(사, 巳)

자신의 당신의 능력 만으로 충분히 성과를 얻을 날 수 있으며 주위를 감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망설임 없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65년생** 힘이 솟고 더욱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것이다. **77년생**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한번 실패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띠(오, 午)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며 피할 수는 없다. 의지만 있다면 아무일 아닌 것처럼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도의 노력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침착하게 평소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66년생** 자꾸 울조러 들기 쉬운 날이다. 오래반지 않게 태도를 분명히 하라. **78년생**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띠(미, 未)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지인, 친구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보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돈독한 관계가 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7년생** 이 사람 저 사람 뒤처다까리 하다가 자기 일은 하지 못할 수 있다. **79년생**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그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띠(신, 申)

나의 성실함이 주위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나 더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좋은 선순환 관계가 될 것이다. **68년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80년생**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금전상으로 부수입도 기대할 수 있겠다.



띠(유, 酉)

지금이 가장 행동할 시간일 것이다. 더 이상의 욕심은 무리일듯 싶다. 대이상 전진이 없는 현상 유지만 한다 해도 아주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있다.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69년생** 계획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추진력이 필요할 뿐이다. **81년생** 자기 잘못을 가지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일린다.



띠(술, 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추진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큰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의 기쁨이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헤쳐나갈 것 같은 마음이다. **70년생** 오늘 하루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82년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진실한 고백을 듣게 된다.



띠(해, 亥)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결정할수록 실수만 생긴다. 무엇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꼼꼼히 생각해보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실행하면 된다. **71년생**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다. **83년생** 현재 상태를 정화하게 잘 실패야 한다.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다.